

지난 24일 오후 2시, 신광중학교 정구코트에서는 김수진(3년), 김효영(3년), 최정미(2년), 김류(2년), 임수민(2년), 조순애(1년), 최미란(1년), 박은지(1년), 등 8인의 '정구소녀'들이 장미빛 미래를 위해 코트를 누비고 있다. "전위에서는 미리 공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허둥대고 정확한 발리를 하지 못해" 김현순 코치의 전위플레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그들의 파워에 'V' 행진' 보인다

스포츠 포커스

장맛비가 잠시 주춤하며 3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이들 소녀들은 햇볕을 온몸으로 받으며 연습에 열중이다. 전위 연습과 스윙연습, 서브 연습을 하는 이들의 얼굴에선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지만 피곤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사뭇 진지한 이들의 얼굴엔 긴장감마저 흐른다.

'전국 챔프' 광주 신광중학교 '8인의 정구 소녀들'을 시즌 벌써 3관왕...목표는 전관왕

인터뷰를 하지는 기자의 말에 상대 코트를 노려보던 날카로운 시선과 금세 웃고 떠드는 모습이 사춘기 소녀들과 다르지 않다. "날도 더운데 운동 힘들지 않아요"라는 질문에 "힘들지 않아요. 저희들은 운동을 즐겨요"라고 최정미가 대답하자, 여기저기서 "너무 고사적 대답이다"라며 웃음짓는 피운다. 벌써 3관왕을 했는데 아직 목표가 있을까 라고 묻자 "전관왕 이요" 입을 모은다. 이들이 말하는 '전관왕'이란 그 해 열리는 주요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팀들도 감히 전관왕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담기 어렵다. 특히 선수들이 전관왕에 대한 자신감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치기어린 꿈'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전국 정구대회 단체전 우승과 함께 다른 팀들이 두려워 하는 챔피언의 위업을 갖게 됐다. 오는 8월 8일 중·고 연맹전대회 우승도 "매년명상"이다. 하지만 출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타 팀들이 '혼자 독식한다'는 견제가 심한데다 한 팀의 독주를 막기 위해 팀간에 대화출전을 자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장을 맡고 있는 김수진(16·3년)은 "다른 학교 친구들이 이제 3관왕이나 했으니 올 해는 더 이상 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해요"라며 활짝 웃었다. 신광중학교 여자 정구부가 전국최강에 오르기까지는 8인의 소녀들이 명절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린 것도 있지만 김태군(42)감독과 김현순(여·44)코치의 정구에 대한 열정과 사령이 밀바람을 이루고 있다. 신광중학교 정구부는 선수수급 어려움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다. 지난 1996년부터 신광중학교 정구부를 지도했던 김 감독은 선수수급을위해 2001년 문화초등학교 여자 정구부를 창단했고, 초등학교부터 기초를 다진 최정미, 김류, 임수민을 2004년 신광중학교 선수로 받아들여 2년만에 전국최강에 올려 놓았다. 김 감독의 옆에는 항상 김현순 코치의 도움이 있었다. 김 코치는 선수들을 딸처럼 다독이며 정구부를 자율적인 분위기로 이끄는 데 힘을 발휘했다. 김코치의 자상하고 자율적 선수관리 덕에 이들은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쓰고 연습하고 대회에 출전한다. 김 코치는 "아직은 여중생이지만 여자로서 얼굴 피

부는 가꿔줘야 한다고 생각해 꼭 선크림을 바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팀의 자율적인 분위기는 오늘의 신광중학교 정구부가 있게 한 원동력이 됐다. 김 감독은 대회 전 연습게임을 통해 학년에 상관없이 선수를 선발하고, 모든 데이터를 학부모에게 보여 주기 때문에 선수선발에 대한 잡음도 없다. 이러한 투명한 팀 운영은 선수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했고, 운동장에 서면 최선을 다한다는 팀 분위기를 창출했다. 그래서 이들은 단체전에 강하다.

피부도 가꿔야죠... 얼굴엔 '선크림'

팀 전력의 추축을 이루고 있는 2학년 최정미, 임수민, 김 류는 문화초등학교부터 김 감독이 조련한 선수들로 이들의 합류는 3학년 김수진과 김효영에게 후배에게 질수없다는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켰고, 전력향상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팀 막내 조순애와 최미란은 "올 시즌 3관왕 했으니 내년에는 전관왕을 하고, 저희가 3학년이 되면 소년체전 3연패의 위업을 이룰 거예요"라고 말했다. 챔피언을 지키기 위한 소녀들의 하루는 고달프다. 다른 학생들은 지난 21일 방학을 시작했지만 이들은 오전 9~12시, 오후 2시~7시까지 하루 8시간 맹훈련을 한다. 오전에는 기기와 기본체력다지기를 하고, 오후에는 시합전술과 경기전술을 훈련하다보면 하루 해가 짧다. "즐거워 운동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라며 힘찬 스페셜을 하는 이들 8인의 정구소녀들의 정열앞에 무더위 미처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 =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코칭스타프, 딸처럼 다독이며 맹훈련

하지만 신광중학교 '정구 소녀'들은 이러한 '꿈'을 이야기 할 자격이 있다. 이들은 올 시즌 이미 3관왕에 등극한 상태다. 지난 3월 제27회 회장기 전국정구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시작으로 4월에는 제11회 장일배 전국남·녀중·고 정구대회에서 5년만에 단체전 우승을 따냈다. 그리고 6월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전국최강으로 우뚝 섰고, 7월 제44회 대통령기



왼쪽부터 김태군 감독, 김수진, 김효영, 최정미, 조순애, 최미란, 이무민, 김류, 박은지, 김현순 코치.

작은 만남 큰 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정시도는
본사 시판부(062)222-8111

금천부동산

나주 금천면 옥리의 금천사거리 나주혁신도시... 대표 김승현 ☎(061)331-4985

금학식당

일거름 하이미트면 꽃게탕전문. 대표 박태영 ☎(062)973-5977

동우프스플

차평동 한국은행앞엔 일개수터운전자 최고시절. 대표 문재수 ☎(062)372-3900

아틀리에

문흥동 문정초교 정문옆 전문미술교육원 ☎(062)430-0770

녹차떡민떡지

지산동 법원앞 삼성APT입구. 대표 조 선 제 ☎(062)224-4916

리치공인중개사

매달동 579-5번지 토지, 상가, 경·공에 취향입선. 대표 조 선 제 ☎(062)682-0034

맛고울정동오리전문점

화정동 능원동 먹자골목 청동오리전문점. 대표 활 화 자 ☎(062)375-1127

영산강공인중개사

나주 금천면 오거리 금천사거리. 대표 김명희 ☎(061)333-7008

바다마을

월계동 동지촌옆 아·고 스포블루이 전문점. 대표 박 태 영 ☎(062)972-3227

최고부

차평동 중흥APT상가내. 대표 최 호 영 ☎(062)383-4488

매일양행

용봉동 홈플러스점. 대표 최 호 영 ☎(062)652-4292

산촌향토오리전문점

동구 지산동 지산유원지. 대표 양 정 님 ☎(062)223-5165

메리느드레방크

유봉동 현대백화점 옆. 대표 양 정 님 ☎(062)522-9729

봉선굴정담

봉선동 봉선유원지. 대표 최 호 영 ☎(062)651-0807

에덴공인중개사

나주 금천면 춘곡리 우영터위건너. 대표 김 승 현 ☎(061)334-5060

정 다 방

나주 금천면 월곡리 금천사거리. 대표 김 승 현 ☎(061)332-6642

두 러 정

용봉동 전남대학교 경주은행 먹자골목. 대표 김 승 현 ☎(062)251-1353

한방습윤심계탕전문점

운암동 삼호 1동. 대표 최 호 영 ☎(062)529-9944

늘조은맛!!

주원동 송림면신안. 대표 최 호 영 ☎(062)651-0807

대강칠국장

중흥동 광주원에점. 대표 최 호 영 ☎(062)514-9233

등운철학관

망동경주은행앞. 대표 최 호 영 ☎(062)376-8396

사랑방가든

매곡동 사랑으로APT. 대표 이 삼 덕 ☎(062)575-1019

헬빙김자탕

월산동 구동계정위. 대표 최 호 영 ☎(062)352-5053

세터농원

나주 금천면 옥리의 금천사거리. 대표 김 승 현 ☎(011)9220-2566

대능농약사

나주 금천면 오거리 금천사거리. 대표 김 승 현 ☎(061)331-1995

돈 사 랑

계림동 구월도리 두산아트센터. 대표 김 승 현 ☎(062)225-1548

한국김바마음

화정동 정동프라자. 대표 최 호 영 ☎(062)234-9293

돈 사 랑

계림동 구월도리 두산APT점. 대표 최 호 영 ☎(062)225-1548

연산반점

송촌동 광주원앞. 대표 최 호 영 ☎(062)385-3927

맑은샘한의원

매곡동 용진2차정문 맞은편. 대표 최 호 영 ☎(062)575-6666

한별공인중개사

월계동 남부대학교후문 옥교옆. 대표 최 호 영 ☎(062)433-8950

왕 자 관

농성동 서구청앞 먹자골목. 대표 최 호 영 ☎(062)368-0840

신화신부동산

나주 금천면 오거리 금천사거리. 대표 최 호 영 ☎(061)334-0440

부자나리부동산중개사

나주 금천면 오거리 금천사거리. 대표 김 승 현 ☎(061)332-1243

(주)여형박사광주지점

용봉동 홈플러스점. 대표 최 호 영 ☎(062)269-1001

다 원 정

우봉동 새마을. 대표 최 호 영 ☎(062)512-4152

최고부

세트메뉴동 특산야채비빔밥. 대표 최 호 영 ☎(062)263-1116

할이프로광택

용봉동 홈플러스점. 대표 최 호 영 ☎(062)267-3602

신토돌이

오치동 862-2번지. 대표 최 호 영 ☎(062)268-1155

매곡김강원

매곡동 심안3차. 대표 최 호 영 ☎(062)573-1092

장군보살

계림동 567-6번지. 대표 최 호 영 ☎(062)225-4192

금현농악종묘사

나주 금천면 오거리 금천사거리. 대표 최 호 영 ☎(061)331-7070

보기민어민떡먹이떡이떡

나주 금천면 오거리 금천사거리. 대표 최 호 영 ☎(061)334-2007

역전극방우리집

학동 구남광주역옆. 대표 최 호 영 ☎(062)232-8901

오선부동산신설점

차평동 한국은행앞. 대표 최 호 영 ☎(062)385-1112

계동침면

오치동 문흥지구입구. 대표 최 호 영 ☎(062)267-0059

사랑방광명점

쌍촌동 광명아파트. 대표 최 호 영 ☎(062)375-3881

오토상사

육석동 196-3번지. 대표 최 호 영 ☎(062)571-0002

가든뷰리조트

계림동 광고에서. 대표 최 호 영 ☎(062)524-8888

우정스포츠화원

중흥동 광주원. 대표 최 호 영 ☎(016)313-5540